

##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대생과 초등교사의 인식 비교\*

송재홍<sup>†</sup>

제주대학교

김광수

서울교육대학교

박성희

청주교육대학교

안이환

부산교육대학교

오익수

광주교육대학교

은혁기

전주교육대학교

정종진

대구교육대학교

조봉환

공주교육대학교

홍종관

대구교육대학교

황대향

경인교육대학교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 교대생과 초등교사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교대생 600명과 초등교사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교대생 451명과 초등교사 289명의 응답 결과를 기초로 학교폭력에 노출된 경험과 심각성 인식, 학교폭력의 원인,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관련 교과목의 개설 및 교육적 요구를 조사하여 반응 백분율과 평균 및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두 집단 간 반응 차이의 유의도를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대생과 초등교사의 절반 이상이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고, 학교폭력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그 비율은 초등교사가 교대생보다 유의하게 높다. 둘째, 그들은 ‘가정의 붕괴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 부족’과 ‘왜곡된 친구관계와 학교폭력서클의 만연’을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감정조절 능력의 부족’과 ‘사회적 대처 기술의 부족’을 각각 가해 원인과 피해 원인으로 인식한다. 셋째, 그들은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목격할 때 관련 학생의 학부모와 면담하여 협조를 구하거나 책임교사(또는 상담교사)와 학교 당국에 알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면서도 그와 관련된 어려움을 함께 호소하고 있다. 넷째, 그들은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 대해 중요성은 비교적 높게 인식한 반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고 있다. 끝으로, 그들은 교사양성기관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에 대체로 찬성하며, 그 비율은 교대생이 초등교사보다 유의하게 높다.

주요어 : 학교폭력, 예방 및 개입, 상담, 교사교육

\* 이 논문은 2012년도 한국연구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일환으로 작성되었음.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송재홍, 제주대학교 초등교육과, (690-78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동일주로 61 / Tel : 064-754-4893, E-mail : songjh@jejunu.ac.kr

## 서론

최근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의 자살이 급증하면서 학교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1년 간 폭행, 집단따돌림, 금품갈취, 사이버폭력 등 학교폭력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밝혀진 자살 건수가 10여 건에 이르고 있으며 그밖에도 상당수 자살 건수가 학교폭력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전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학교폭력 처리 건수는 2008년 8,813건, 2009년 5,605건, 2010년 7,823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학교폭력 관련 민원 건수 역시 2009년 2,017건, 2010년 3,237건, 2011년 4,269건으로 근래에 들어와서 급증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학교폭력의 개념은 연구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김종미, 1997; 김준호, 2006; 노순규, 2012; 정종진, 2012; Astor et al., 1997; Astor & Meyer, 2001; Thomas, 2006).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안전을 위협하고 학업을 방해하는 폭력은 비록 학생들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며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등 다양한 양상으로 전개되게 마련이다. Coloroso(2003)는 학교폭력의 세 가지 성립 요건으로 ① 실수나 고의로 해를 입히는 말과 행동, ②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행동, 그리고 ③ 힘이 센 학생이 약한 학생을, 상급생이 하급생을, 다수의 학생이 한두 명의 학생을 괴롭히는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에 대한 학생의 폭력도 학교폭력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다(Michael et al., 1996).

학교폭력의 실태를 조사한 몇몇 연구 결과(청예단, 2008-2012)를 보면, 초등학교에서 학교폭력에 노출되는 학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학교폭력의 발생 연령이 낮아지고 있으며,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학생이 보복을 가하거나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등 가해자가 되면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 또한 정서적 폭력과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고 일진 문화가 광범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집단화 경향과 잔인성이 증대하고 학교폭력의 현장을 목격하고도 그냥 지나치거나 외면하는 둔감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송재홍, 2012).

이처럼 학교폭력으로 인한 청소년 자살이 급증하는 등 커다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학교교육의 위기를 초래할 정도로 그 심각성이 고조되면서, 지난 2월 정부에서는 관계부처합동회의를 개최하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이 안에서는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7대 정책과제와 62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 교사양성과정에서 예비교사들에게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강좌를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강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의 실태에 대한 정확한 분석은 물론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학생과 교사의 인식과 교육적 요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고 이

를 기초로 한 교육과정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학교폭력의 실태와 그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수행되어 왔지만(청예단, 2008-2012),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해야 하는 현장 교사나 이를 준비해야 하는 교직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매우 희박한 실정이다(박효정, 정미경, 박종효, 2006). 더욱이 학교폭력을 처음 경험하는 시기가 초등학교로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대학 학생이나 초등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수행된 연구는 찾아보기 쉽지 않다.

이에 연구자들은 초등교사 양성 과정에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교대생과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인식 및 요구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 교대생과 초등교사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대생과 초등교사는 학교폭력에 어느 정도 노출되고 있는가?

둘째,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에서 교대생과 초등교사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셋째,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에 대한 인식에서 교대생과 초등교사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넷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인식에서 교대생과 초등교사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끝으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교육적 요구에서 교대생과 초등교사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 연구 방법

###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전국의 교육대학 학생과 초등학교 교사이다. 교육실습 경험이 있는 교대생 600명과 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현직 초등교사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중 교대생은 507명(회수율 84.5%)의 자료가 회수되었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56명의 자료를 제외한 451명(유효 응답률 75.2%)의 자료가 최종 분석되었으며, 초등교사는 339명(회수율 84.8%)의 자료가 회수되었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50명의 자료를 제외한 289명(유효 응답률 72.3%)의 자료가 최종 분석되었다. 응답자의 인구학적 분포는 <표 1>과 같다.

### 조사도구

이 연구의 조사도구는 연구자들이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관한 문헌고찰과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직접 구성하였다. 조사내용은 학교폭력 노출 경험 및 심각성 인식(5문항),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인식(4문항),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강좌의 개설 및 교육적 요구(3문항) 등 모두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사내용에 따라 보충 질문을 추가하고 자료 분석을 위한 인구학적 변인으로 성별, 거주지, 신분 등을 포함시켰다. 또한 각 문항에 대한 반응 형식은 조사내용에 따라 질문지 또는 Likert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질문지 형식의 문항에 대해서는 해당하는 항목에 표시하도록 하였고, Likert 형식의 문항에 대해서는 인식의 정도에 따라 3단계 또는 5단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대생과 초등교사의 인식 비교

표 1. 응답자의 인구학적 분포

구 분	교대생		초등교사		전 체		
	N	%	N	%	N	%	
성별	남자	125	72.5	74	25.6	199	26.9
	여자	326	27.5	215	74.4	541	73.1
지역별	수도권	158	35.0	78	27.0	236	31.8
	충청권	68	15.1	42	14.5	110	14.9
	전라권	62	13.7	51	17.6	113	15.3
	경상권	103	22.9	75	6.0	178	24.1
	강원/제주	60	13.3	43	14.9	103	13.9
	전체	451	100.0	289	100.0	740	100.0

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일부 보충 사도구의 구성 내용은 <표 2>와 같다. 질문에 대해서는 복수 응답을 허용하였다. 조

표 2. 조사도구의 구성 내용

구 분	조사 내용	반응 형식	문항 수
학교폭력 노출 경험 및 심각성 인식	학창시절 학교폭력 노출 경험, 재직(실습) 중 학교폭력 연루 경험	질문지	2
	학창시절 학교폭력 노출 회수 및 유형	질문지	(보충 2)
	학교폭력의 심각성 인식	질문지	1
	유형별 발생 빈도 및 심각성 인식	5단계 Likert 척도	2
학교폭력의 원인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	질문지	1
	학교폭력의 가해 원인 및 피해 원인	질문지	(보충 2)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	학교폭력 연루 시 대처 요령	질문지	1
	학교폭력 대처의 어려움 및 저해 요인	질문지(복수 응답)	(보충 2)
	정부시책의 중요도 및 실효성 인식	3단계 Likert 척도	2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방안	질문지	(보충 2)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의 교육적 요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강좌 요구	질문지	1
	교육과정 구성요소별 중요도 및 자기역량 인식	3단계 Likert 척도	2
전체			12 (보충 8)

자료 수집 및 처리

이 연구의 자료 수집은 2012년 6월1일부터 7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전국의 10개 교육대학교에 재직 중인 교수진의 협조를 얻어 교육대학 재학생과 교육대학원 재학 중인 초등학교 교사가 직접 작성하도록 하였다. 설문지는 실시 요령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문과 함께 표집된 대상 학교로 우편 발송하였으며, 수합된 설문지는 반송용 봉투에 넣어 회송하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처리 및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은 통계적 분석이 수행되었다.

첫째, 질문지 형식의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와 대상 집단별(교대생, 초등교사)로 각 문항에 대한 항목별 반응 백분율(%)을 산출하고 두 집단 간 반응 차이의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chi^2$ 값을 산출하였다.

둘째, Likert 형식의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와 대상 집단별(교대생, 초등교사)로 각 문항에 대한 항목별 평균(M)과 표준편차(SD)를 산출하고 두 집단 간 반응 차이의 유의도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에 의한  $t$ 값을 산출하였다. 또한 대상 집단 간 각 항목별 발생 빈도와 심각성, 중요도와 실효성, 또는 중요도와 자기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그 결과를 그래프로 제시하였다.

셋째, 보충 질문의 문항에 대해서는 전체와

대상 집단별(교대생, 초등교사)로 각 문항에 대한 항목별 반응 백분율(%)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그래프로 제시하여 비교하였다. 다만 복수 응답의 문항에 대해서는 항목별 반응 빈도를 대상 집단의 응답자 수로 나눈 후 백분율(%)을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및 해석

학교폭력의 경험 유무 및 심각성 인식

먼저 초등(예비)교사의 학교폭력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초등(예비)교사의 학창 시절 학교폭력 경험 유무와 초등학교 재직(또는 실습) 중 초등학생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연루된 경험을 함께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에서 보면,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목격하거나 직접 경험한 응답자의 비율은 교대생 53.9%, 초등교사 52.6%로 절반 이상이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경험하였으며, 2회 이상 경험한 응답자의 비율도 교대생 47.3%, 초등교사 45.7%이었고(그림 1) 학교폭력을 경험한 응답자의 10% 정도는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을 함께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 또한 교생 실습 또는 학교 재직 중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에 연루된 경험이 있는 응답

표 3. 초등(예비)교사의 학교폭력 경험율(%)

구 분	전 체 (N=740)	교대생 (N=451)	초등교사 (N=289)	$\chi^2(1)$
학창 시절 학교폭력 경험	53.4	53.9	52.6	.117
재직 중 초등학생 폭력 경험	49.9	48.3	52.2	1.078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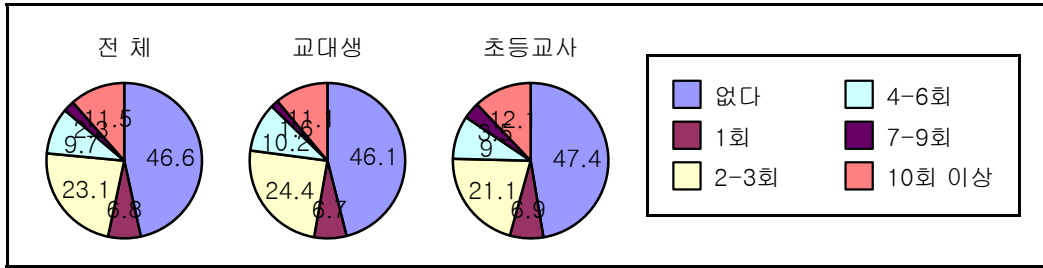


그림 1. 학창 시절 학교폭력 경험의 회수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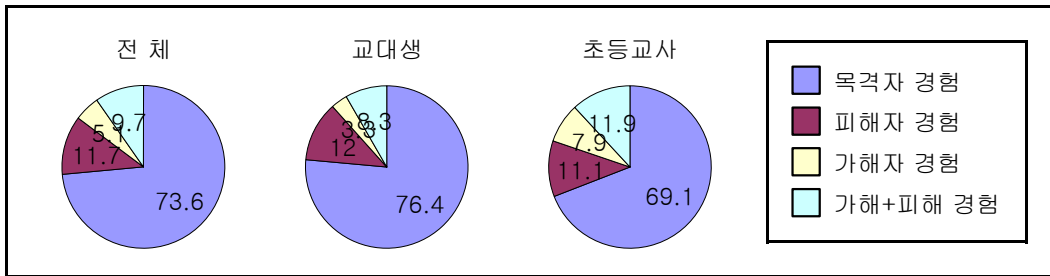


그림 2. 학창 시절 학교폭력 경험의 유형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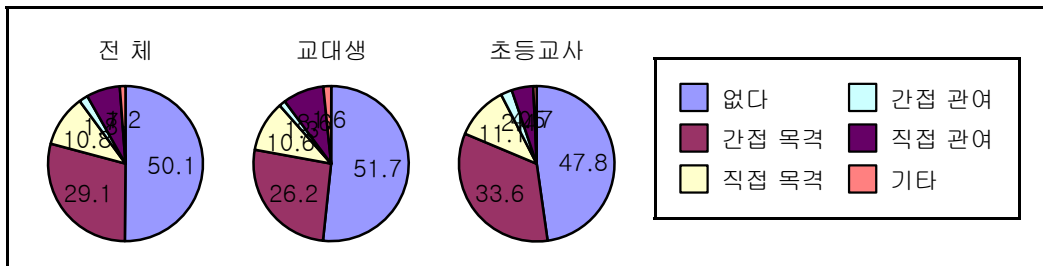


그림 3. 재직(또는 실습) 중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에 연루된 경험의 유형별 분포(%)

자의 비율은 교대생 48.3%, 초등교사 52.2%이었으며, 그중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을 목격한 응답자의 비율은 교대생 36.8%, 초등교사 44.7%이었고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응답자의 비율은 교대생 9.9%, 초등교사 6.9%로 나타났다(그림 3).

한편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초등(예비)교사의 인식도는 <표 4>와 같고, 학교폭력 유형별 발생빈도와 심각성에 대한 초등(예비)

교사의 인식 수준은 각각 <표 5> 및 <표 6>과 같다.

<표 4>에서 보면, 학교폭력이 꽤 또는 매우 심각하다고 반응한 응답자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57.5%로 10명 중 5,6명은 학교폭력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비율은 초등교사(63.7%)가 교대생(53.7%)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4)=8.852, p<.05$ ).

표 4.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초등(예비)교사의 인식도(%)

구 분	전 체 (N=740)	교대생 (N=451)	초등교사 (N=289)	$\chi^2(4)$
전혀 심각하지 않다	0.0	0.0	0.0	8.852*
별로 심각하지 않다	8.0	9.5	5.5	
약간 심각하다	34.5	36.8	30.8	
꽤 심각하다	43.2	39.7	48.8	
매우 심각하다	14.3	14.0	14.9	

\*  $p < .05$  \*\*  $p < .01$

표 5. 유형별 학교폭력의 발생 빈도에 대한 초등(예비)교사의 인식 수준

구 분	전 체 (N=740)		교대생 (N=451)		초등교사 (N=289)		$t(739)$
	M	SD	M	SD	M	SD	
신체 폭력(상해, 폭행, 유인)	3.18	.75	3.11	.75	3.27	.74	-2.845**
언어폭력(모욕, 헐담 등)	4.21	.75	4.16	.75	4.28	.74	-2.187*
금품 갈취(공갈)	2.80	.83	2.69	.81	2.98	.82	-4.796**
강요(강제적 심부름)	3.18	1.01	3.05	.99	3.38	1.01	-4.388**
집단 따돌림	3.92	.85	3.86	.87	4.02	.82	-2.634**
성 폭력	2.16	.78	1.96	.66	2.46	.86	-8.515**
사이버 폭력	3.63	1.05	3.49	1.06	3.84	1.01	-4.608**

\*  $p < .05$  \*\*  $p < .01$

<표 5> 및 <표 6>에서 유형별 학교폭력의 발생 빈도와 심각성에 대한 초등(예비)교사의 인식 수준을 보면, 7개 유형 모두에서 초등교사가 교대생보다 학교폭력을 좀 더 자주 발생하고 좀 더 심각한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5$  이상).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성폭력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면( $p < .01$ ) 언어폭력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두드러진 것으로 밝혀졌다( $p < .05$ ). 또한 교대생과 초등교사 모두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

림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가장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사이버 폭력과 신체 폭력이 그 뒤를 이었고 금품 갈취와 성폭력은 상대적으로 덜 빈번하게 발생하고 덜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그림 4). 특히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은 5점 만점에 4점 이상으로 자주 발생하고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고 교대생과 초등교사 간에 인식 수준의 차이도 낮은 반면에( $t(739) = -2.395, -2.357, p < .05$ ), 성 폭력의 발생 빈도와 심각성에 대한

표 6. 유형별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초등(예비)교사의 인식 수준

구 분	전 체 (N=740)		교대생 (N=451)		초등교사 (N=289)		t(739)
	M	SD	M	SD	M	SD	
신체 폭력(상해, 폭행, 유인)	3.49	.95	3.40	.97	3.65	.90	-3.516**
언어폭력(모욕, 헐담 등)	4.07	.87	4.01	.90	4.17	.82	-2.395*
금품 갈취(공갈)	3.20	1.04	3.08	1.07	3.38	.96	-3.970**
강요(강제적 심부름)	3.31	1.07	3.19	1.08	3.52	1.02	-4.130**
집단 따돌림	4.10	.89	4.04	.93	4.20	.81	-2.357*
성 폭력	3.10	1.30	2.94	1.33	3.35	1.20	-4.284**
사이버 폭력	3.68	1.04	3.59	1.05	3.81	1.02	-2.818**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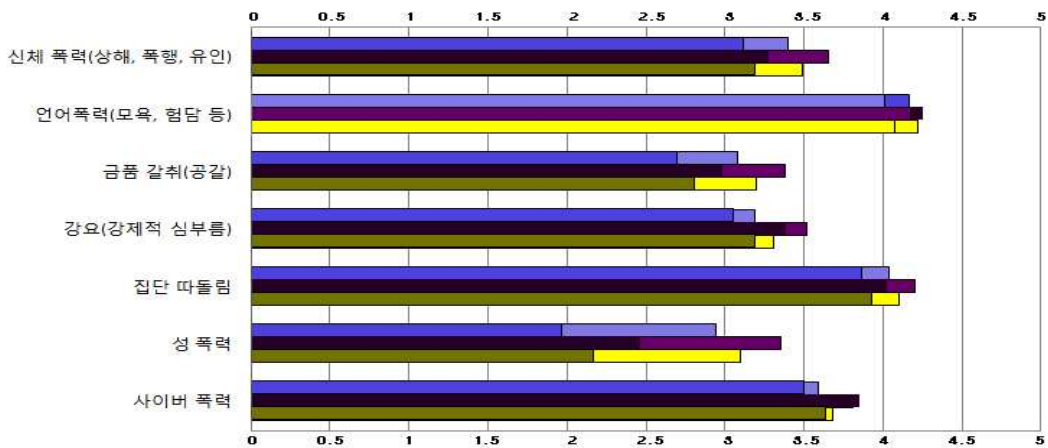


그림 4. 유형별 학교폭력의 발생 빈도와 심각성에 대한 초등(예비)교사의 인식 수준

인식 수준의 차이는 매우 커서 초등교사(발생 빈도 2.94, 심각성 3.35)가 교대생(발생 빈도 1.99, 심각성 2.94)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t(739) = -8.515, -4.284, p < .01$ ).

####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의 원인에 대한 초등(예비)교사의

인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으며 부수적으로 가해 학생 및 피해 학생의 주된 원인에 대한 인식도를 조사하였다.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에 대한 인식도는 <표 7>과 같다.

<표 7>에서 보면, 초등(예비)교사는 ‘가정의 붕괴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 부족’(35.7%)과 ‘왜곡된 친구관계와 학교폭력서클의



표 7.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에 대한 초등(예비)교사의 인식도(%)

구 분	전 체 (N=740)	교대생 (N=451)	초등교사 (N=289)	$\chi^2(5)$
학생 개인의 신체적·심리적 문제	9.1	9.1	9.0	4.977
왜곡된 친구관계와 학교폭력서클의 만연	26.5	24.6	29.4	
가정의 붕괴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 부족	35.7	38.1	31.8	
지식만능주의와 학교교육의 왜곡(입시과열 등)	10.3	10.9	9.3	
물질만능주의와 유해환경(PC방, 유흥시설 등)의 만연	7.6	7.3	8.0	
기 타	10.9	10.0	12.5	

\*  $p < .05$  \*\*  $p <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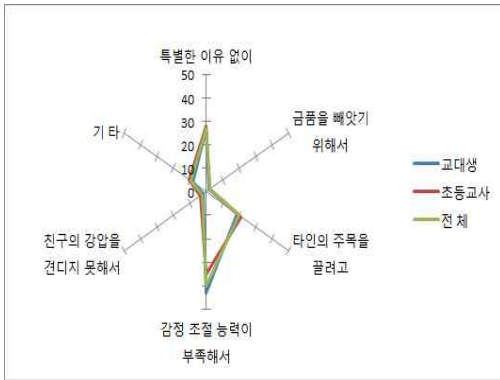


그림 5. 학교폭력의 가해 원인에 대한 초등(예비)교사의 인식도(%)

만연'(26.5%)을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의 가해 원인으로는 '감정조절 능력이 부족해서'(39.9%)와 '특별한 이유 없이'(26.9%)를 주된 요인으로 인식하였으며(그림 5), 학교폭력의 피해 원인으로는 '사회적 대처 능력의 부족'(59.3%)을 가장 주된 요인으로 인식하였다(그림 6).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인식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초등(예비)교사의 인식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학교폭력의 연루 과정에서 대처 행동을 조사하였으며, 부수적으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겪는 주된 어려움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처 노력의 효과를 저해하는 요인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최근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중요도와 실효성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하였고, 부수적으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집단과 학교폭력 예방교육프로그램 및 위기개입 상담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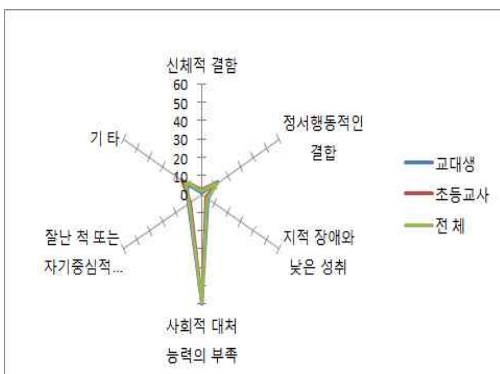


그림 6. 학교폭력의 피해 원인에 대한 초등(예비)교사의 인식도(%)

주로 담당해야 할 집단에 대한 인식도를 함께 조사하였다.

먼저 학교폭력 연루 과정에서 초등(예비)교사의 대처 행동을 보면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경험하거나 목격할 때 교대생 34.4%와 초등교사 30.1%는 관련 학생의 학부모와 면담하여 심각성을 알리고 협조를 구한다고 응답하였으며, 교대생의 29.5%와 초등교사의 29.8%는 책임교사(또는 상담교사)나 학교 당국에 알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교대생의 19.3%와 초등교사의 17.6%가 관련 학생을 적당히 타이르거나 지도하고 마무리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에 교육청, 경찰서 등에 설치된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Wee 센터, CYS Net 등 지역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도록 조치한다고 응답한 교대생과 초등교사의 비율은 각각 9.8%와 11.7%로 낮게 나타났다. 또한 교대생과 초등교사는 모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들을 상담하거

나 선도·보호하는 일(66.2%)과 그들의 학부모를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일(56.4%)을 주된 어려움으로 지적하였으며(그림 7),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노력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주된 요인으로 피해 학생이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려하기 때문(56.1%)이거나 다수의 학생들이 또래 집단의 분위기에 동조하기 때문(51.2%)이라고 지적하였고 학교폭력 신고에 따른 조사와 처벌 과정이 미흡한 것(41.8%)도 또 다른 요인으로 지적하였다(그림 8).

한편 정부의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에서 제시된 주요 정책과제의 중요도와 실효성에 대한 초등(예비)교사의 인식 수준은 <표 9> 및 <표 10>과 같다.

<표 10> 및 <표 11>에서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주요 정책과제별 중요도와 실효성에 대한 초등(예비)교사의 인식 수준을 보면,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정책에 대해서 교대생이 초등교사보다 좀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t(739)=1.794$ ,

표 8. 학교폭력 연루 과정에서 초등(예비)교사의 대처 행동(%)

구 분	전 체 (N=740)	교대생 (N=451)	초등교사 (N=289)	$\chi^2(5)$
관련 학생을 적당히 타이르거나 지도하고 마무리한다.	18.6	19.3	17.6	
책임교사(또는 상담교사)나 학교 당국에 알려 적극 대처한다.	29.6	29.5	29.8	
교육청, 경찰서 등에 설치된 학교폭력신고센터에 신고한다.	6.9	6.9	6.9	
Wee 센터, CYS Net 등 지역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도록 조치한다.	3.6	2.9	4.8	5.825
관련 학생의 학부모와 면담하여 심각성을 알리고 협조를 구한다.	32.7	34.4	30.1	
기 타	8.5	7.1	10.7	

\*  $p<.05$  \*\*  $p<.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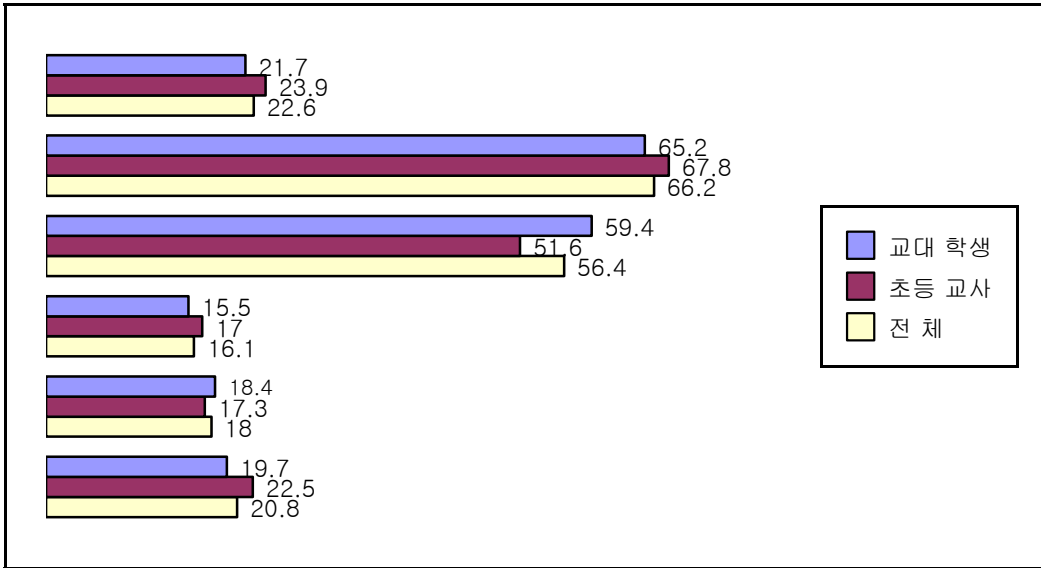


그림 7.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의 어려움에 대한 초등(예비)교사의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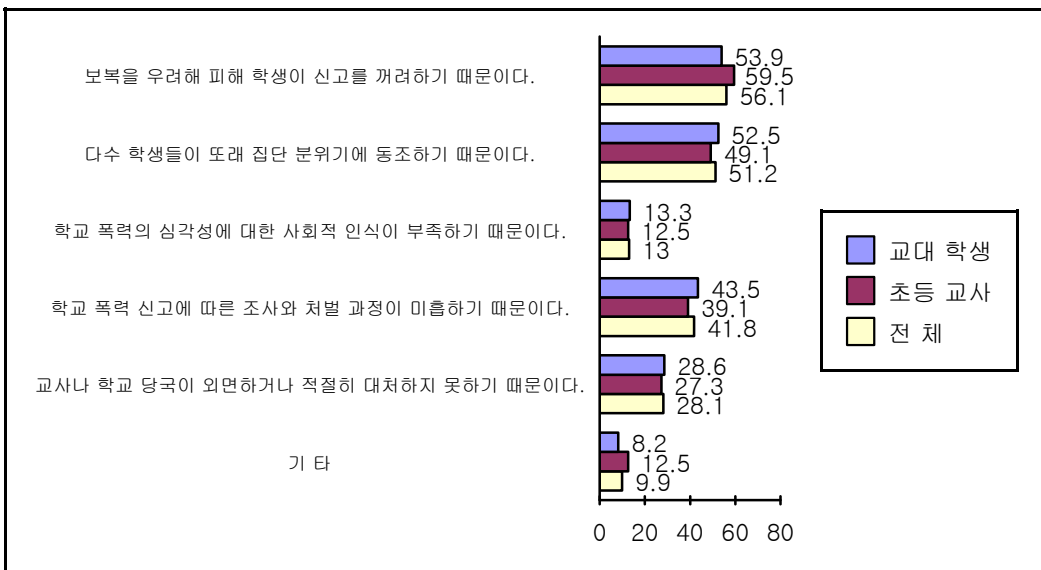


그림 8.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마련의 한계 이유에 대한 초등(예비)교사의 인식(%)

$p < .05$ ], 다른 정책과제들에 대해서는 교대생과 초등교사의 인식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교대생과 초등교사는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중요성은 비교

적 높은 것으로 인식한 반면에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인식하였다(그림 9). 그들은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정책과제 중에서 신고·조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대생과 초등교사의 인식 비교

표 9.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중요도에 대한 초등(예비)교사의 인식 수준

구 분	전 체 (N=740)		교대생 (N=451)		초등교사 (N=289)		t (739)
	M	SD	M	SD	M	SD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2.60	.41	2.62	.41	2.57	.42	1.464
신고체계 개선 및 가해·피해 학생 조치	2.71	.33	2.71	.32	2.71	.34	-.108
또래활동 등 예방 교육의 확대	2.48	.44	2.46	.45	2.50	.44	-1.311
학부모 교육 확대 및 책무성 강화	2.45	.47	2.45	.47	2.44	.47	.173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2.28	.34	2.29	.43	2.26	.44	1.160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2.64	.45	2.66	.42	2.60	.49	1.794*
게임, 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 대책	2.53	.54	2.55	.53	2.50	.55	1.150

\*  $p < .05$  \*  $p < .01$

표 10.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실효성에 대한 초등(예비)교사의 인식 수준

구 분	전 체 (N=740)		교대생 (N=451)		초등교사 (N=289)		t (739)
	M	SD	M	SD	M	SD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	2.18	.52	2.20	.54	2.16	.49	1.038
신고체계 개선 및 가해·피해 학생 조치	2.31	.55	2.31	.57	2.32	.52	-.318
또래활동 등 예방 교육의 확대	2.13	.56	2.12	.58	2.15	.54	-.570
학부모 교육 확대 및 책무성 강화	2.04	.61	2.02	.62	2.07	.60	-1.089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	1.99	.48	2.00	.49	1.97	.46	.830
가정과 사회의 역할 강화	2.23	.64	2.23	.65	2.22	.63	.185
게임, 인터넷 중독 등 유해 요인 대책	2.17	.66	2.17	.67	2.16	.65	.168

\*  $p < .05$  \*\*  $p < .01$

체계 개선 및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가장 중요한 과제(2.71)로, 가정 및 사회의 역할 강화(2.66)와 학교장·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2.60)를 다음으로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였으며 대부분의 정책과제에 대해서 중요도를 3점 만점에 2.5 이상으로 높게 평정하였다. 그

러나 정책과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신고·조사 체계 개선 및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2.31)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3점 만점에 2.3 미만으로 낮게 평정하였으며, 특히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에 대해서는 중요도 2.28, 실효성 1.99로 비교적 덜 중요하고 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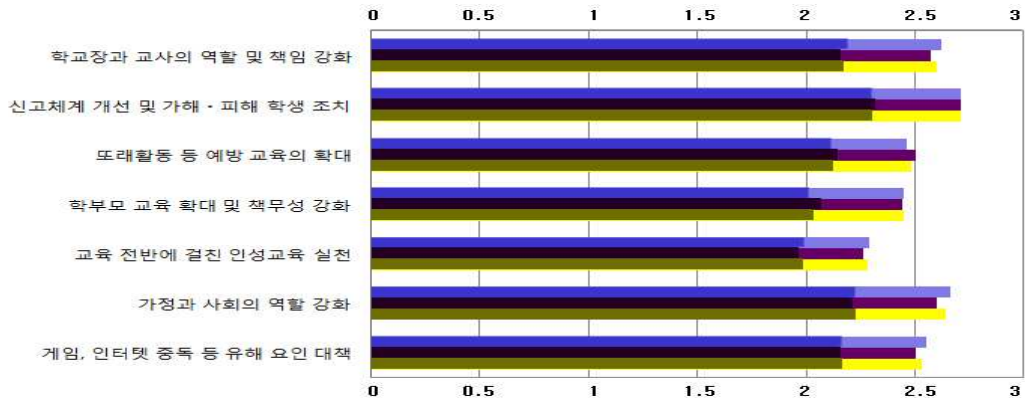


그림 9.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중요도와 실효성에 대한 초등(예비)교사의 인식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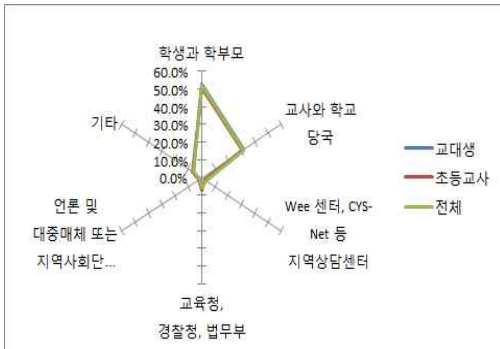


그림 10.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 집단에 대한 초등(예비)교사의 인식(%)

효성도 가장 낮은 과제로 인식하였다.

초등(예비)교사들은 모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집단으로 학생과 학부모(교대생 52.5%, 초등교사 50.9%) 그리고 교사와 학교 당국(교대생 31.5%, 초등교사 30.8%)을 지적하였으며(그림 10), 또한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위기개입 상담을 주로 담당해야 할 집단으로는 전문상담교사(학생 45.0%, 교사 47.8%)와 담임교사(학생 33.3%, 교사 29.4%)를 지적하였다(그림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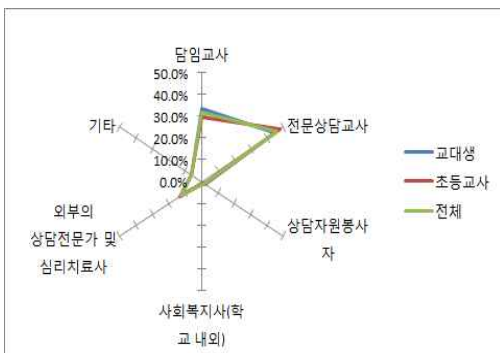


그림 11.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상담을 주로 담당해야 할 집단에 대한 초등(예비)교사의 인식(%)

###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교육적 요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초등(예비)교사의 교육적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교사양성기관에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교과를 개설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조사하고, 교과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교육내용의 중요도와 자기 역량에 대한 인식 수준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표 11>과 <표 12> 및 <표 13>과 같다.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대생과 초등교사의 인식 비교

표 11. 교사양성기관에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교과 개설에 대한 의견

구 분	전 체 (N=740)	교대생 (N=451)	초등교사 (N=289)	$\chi^2(2)$
찬성한다.	71.2	75.6	64.4	13.432**
반대한다.	11.6	11.1	12.5	
잘 모른다.	17.2	13.3	23.2	

\*  $p < .05$  \*\*  $p < .01$

표 12.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교과 내용의 중요도에 대한 초등(예비)교사의 인식 수준

구 분	전 체 (N=740)		교대생 (N=451)		초등교사 (N=289)		$t$ (739)
	M	SD	M	SD	M	SD	
학교폭력의 개념적 이해와 적용	2.41	.63	2.40	.65	2.44	.60	-.849
학교폭력의 발생경로와 대처 모형	2.55	.59	2.53	.59	2.57	.60	-.819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 정책	2.26	.64	2.24	.66	2.29	.60	-.904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2.31	.67	2.30	.68	2.31	.66	-.219
교육과정 인간화와 창의·인성교육	2.46	.66	2.47	.65	2.44	.68	.523
공동체 정신 함양을 위한 학급운영	2.61	.58	2.61	.58	2.60	.58	.177
의사소통 및 사회적 적응 기술	2.67	.53	2.67	.52	2.68	.54	-.160
도덕적 심성개발과 자기성찰능력	2.61	.56	2.62	.56	2.60	.55	.502
학교폭력의 조기 감지	2.58	.57	2.60	.55	2.55	.60	1.235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집단 상담	2.72	.51	2.73	.50	2.70	.52	.59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개인 상담	2.74	.48	2.74	.48	2.75	.48	-.441
학교폭력 관련 각종 심리평가	2.56	.60	2.55	.60	2.59	.60	-.851
학교폭력 위기 개입 상담	2.70	.51	2.71	.50	2.67	.52	.963
피해 학생의 보호 및 사후관리	2.79	.44	2.79	.44	2.79	.43	.081
가해 학생의 조치 및 사후관리	2.79	.43	2.80	.42	2.78	.45	.812
학부모 상담 및 조정	2.77	.46	2.81	.40	2.70	.54	3.034**
유형별 학교폭력의 대처 요령	2.67	.52	2.68	.52	2.66	.52	.392
학교폭력 사안별 법적 대응 요령	2.54	.58	2.54	.59	2.55	.56	-.130
학교장, 교사 등의 책무	2.50	.59	2.51	.59	2.48	.60	.473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역할	2.43	.63	2.42	.64	2.46	.62	-.909

\*  $p < .05$  \*\*  $p < .01$

표 13.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교과 내용의 자기역량에 대한 초등(예비)교사의 인식 수준

구 분	전 체 (N=740)		교대생 (N=451)		초등교사 (N=289)		t (739)
	M	SD	M	SD	M	SD	
학교폭력의 개념적 이해	2.30	.60	2.33	.62	2.27	.58	1.330
학교폭력의 발생경로와 대처 모형	2.18	.67	2.16	.68	2.22	.66	-1.107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 정책	1.97	.64	1.98	.63	1.97	.66	.210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1.99	.71	1.98	.70	2.01	.71	.487
교육과정 인간화와 창의·인성교육	2.17	.69	2.18	.68	2.15	.70	.615
공동체 정신 함양을 위한 학급운영	2.30	.64	2.28	.67	2.34	.61	-1.161
의사소통 및 사회적 적응 기술	2.36	.63	2.37	.63	2.35	.64	.462
도덕적 심성계발과 자기성찰능력	2.26	.64	2.27	.64	2.24	.64	.707
학교폭력의 조기 감지	2.17	.67	2.19	.68	2.15	.65	.912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집단 상담	2.24	.71	2.27	.71	2.19	.70	1.427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개인 상담	2.31	.70	2.32	.69	2.31	.72	.214
학교폭력 관련 각종 심리평가	2.12	.73	2.12	.74	2.11	.72	.163
학교폭력 위기 개입 상담	2.19	.71	2.24	.71	2.12	.71	2.160*
피해 학생의 보호 및 사후관리	2.24	.71	2.25	.70	2.21	.74	.752
가해 학생의 조치 및 사후관리	2.22	.73	2.25	.73	2.17	.72	1.523
학부모 상담 및 조정	2.18	.73	2.22	.72	2.11	.73	1.927*
유형별 학교폭력의 대처 요령	2.21	.68	2.24	.69	2.17	.66	1.476
학교폭력 사안별 법적 대응 요령	2.11	.71	2.12	.70	2.11	.72	.192
학교장, 교사 등의 책무	2.15	.65	2.17	.65	2.12	.66	1.01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역할	2.10	.67	2.10	.66	2.10	.67	- .100

\*  $p < .05$  \*\*  $p < .01$

<표 11>을 보면, 초등(예비)교사들은 교사 양성기관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교과목을 개설하는 방안에 대해 대체로 찬성하고 있다. 교과목 개설에 찬성하는 응답자의 비율은 전체적으로 71.2%로 10명 중 7명 정도가 교과목 개설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찬성

한다’고 반응한 응답자의 비율은 교대생(75.6%)이 초등교사(64.4%)보다 유의하게 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hi^2(2)=13.432, p < .01$ ).

<표 12>에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교과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교육내용의 중요도에 대한 초등(예비)교사의 인식 수준을 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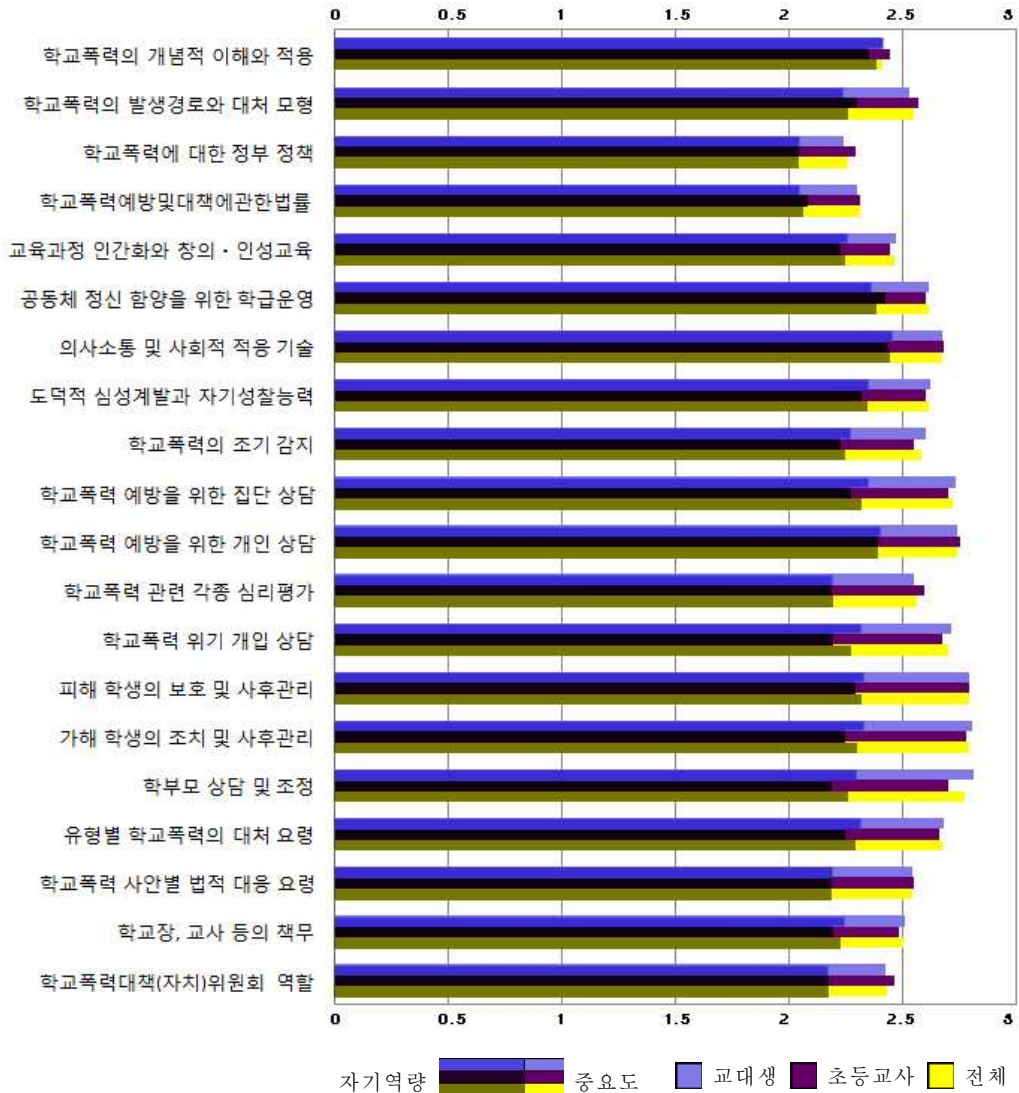


그림 12.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교과 내용의 중요도와 자기역량에 대한 초등(예비)교사의 인식 수준

20개 영역 중에서 학부모 상담 및 조정에 대해서만 교대생(2.81)이 초등교사(2.70)보다 유의하게 좀 더 중요한 교육요소로 인식하고 있을 뿐( $t(739)=3.034, p<.01$ ), 나머지 교육요소에 대해서는 인식 수준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면, 초등(예비)교사

들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교과에 포함될 20개 주요 교육내용 중 15개 영역에서 중요도 3점 만점에 2.5 이상으로 평정하여 대부분의 요소들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및 사후관리, 학부모 상담 및 조정, 그리고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개인 및 집단 상담과 학교 폭력 위기개입 상담에 대해서는 2.7 이상으로 매우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13>에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교과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교육내용의 자기역량에 대한 초등(예비)교사의 인식 수준을 보면, 20개 영역 중에서 학교폭력 위기개입 상담과 학부모 상담 및 조정에 대해서만 교대생(각각 2.24, 2.22)이 초등교사(각각 2.12, 2.11)보다 자기역량이 유의하게 좀 더 풍부한 교육내용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t(739)=2.160, 1.927, p<.05$ ), 나머지 교육내용에 대해서는 인식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보면, 초등(예비)교사들은 ‘학교폭력의 예방 대책’ 교과에 포함될 20개 주요 교육내용 중 학교폭력의 개념적 이해, 공동체 정신 함양을 위한 학급운영, 의사소통 및 사회적 적응 기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개인 상담 등 4개 영역을 제외하고는 자기역량을 3 점 만점에 2.3 미만으로 평정하여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자기역량은 비교적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교대생과 초등교사 모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교과에 포함될 주요 교육내용에 대해 중요도는 높게 평정하고 있는 반면 자기역량은 낮게 평정하고 있었으며, 특히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및 사후관리, 학부모 상담 및 조정, 그리고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개인 및 집단 상담과 학교폭력 위기개입 상담에 대해서는 중요도는 높게 평정한 반면 자기역량은 낮게 평정하였다(그림 12). 또한 학교폭력의 개념적 이해와 적용, 공동체 정신 함양을 위한 학급운영, 그리고 의사소통 및 사회적 적응 기술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자기역량을 보통 수준으로 평정

한 반면,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 정책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일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자기역량 모두 가장 낮게 평정하였다.

##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관한 인식에 있어서 교대생과 초등교사의 차이를 비교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교대생과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에 노출된 경험과 심각성 인식, 학교폭력의 원인, 예방 및 대책에 대한 인식, 그리고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관련 교과의 개설 및 교육적 요구를 조사하여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의 노출 경험과 관련하여 교대생과 초등교사의 절반 이상이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경험하였으며, 그중 대다수가 학교폭력을 2회 이상 경험하였고 또 약 20% 정도는 피해 경험과 가해 경험을 함께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대생과 초등교사의 절반 정도는 교생 실습이나 재직 중 초등학생의 학교폭력에 목격하거나 연루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교대생과 초등교사 10명 중 5,6명은 학교폭력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비율은 초등교사가 교대생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대생과 초등교사 모두 언어폭력과 집단 따돌림을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가장 심각한 학교폭력으로 인식한 반면 금품 갈취와 성 폭력은 상

대적으로 덜 빈번하게 발생하고 덜 심각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학교폭력의 7개 유형 모두에서 초등교사가 교대생보다 학교폭력을 좀 더 자주 발생하고 좀 더 심각한 현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인식의 차이는 성폭력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과 관련하여 교대생과 초등교사는 ‘가정의 붕괴와 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 부족’과 ‘왜곡된 친구관계와 학교폭력서클의 만연’을 학교폭력의 주요 원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의 가해 원인으로서는 ‘감정조절 능력이 부족해서’와 ‘특별한 이유 없이’를 주된 요인으로 인식하였고, 학교폭력의 피해 원인으로서는 ‘사회적 대처 기술의 부족’을 가장 주된 요인으로 인식하였다. 이 결과는 감정조절 능력과 사회적 대처 기술 같은 발달자산을 증진하는 일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의 주된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인식과 관련하여 교대생과 초등교사는 학생들의 학교폭력을 목격할 때 관련 학생의 학부모와 면담하여 심각성을 알리고 협조를 구하거나 책임교사(또는 상담교사)와 학교 당국에 알려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다. 반면에 교육청, 경찰서 등에 설치된 학교폭력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Wee 센터, CYS Net 등 지역상담센터에서 상담을 받도록 조치한다고 인식한 응답자의 비율은 비교적 낮게 나타났다. 또한 교대생과 초등교사는 모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에 연루된 학생들을 상담하거나 선도·보호하는 일과 그들의 학부모를 설득하고 협조를 구하는 일을 주된 어려움으로 인식하였다. 이

결과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해 지역상담센터와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다섯째, 정부가 발표한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교대생과 초등교사는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 중요성은 비교적 높게 인식한 반면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였다. 그들은 정부가 내놓은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정책과제 중에서 신고·조사 체계 개선 및 가해·피해 학생에 대한 조치, 가정 및 사회의 역할 강화, 그리고 학교장·교사의 역할 및 책임 강화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교육 전반에 걸친 인성교육 실천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고 실효성도 가장 낮은 과제로 인식하였다. 더욱이 교대생과 초등교사는 모두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집단으로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와 학교 당국을, 학교폭력 예방교육 및 위기개입 상담을 주로 담당해야 할 집단으로는 전문상담교사와 담임교사를 지적하였다. 이 결과는 초등(예비)교사들이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정부의 시책에 의존하기보다는 학교 현장 요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함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교대생과 초등교사는 교사양성기관에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교과목을 개설하는 것에 대체로 찬성하였으며, 그 비율은 교대생이 초등교사보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교과에서 다루어야 할 주요 교육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식하면서도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마련을 위한 자기역량은 낮게

평정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 및 사후 관리, 학부모 상담 및 조정,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개인 및 집단 상담, 그리고 학교폭력 위기개입 상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반면에 학교폭력에 대한 정부 정책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일에 대해서는 중요도와 자기역량 모두 가장 낮게 평정하여 상대적으로 관심이 적고 낮은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 결과는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상담 개입과 법적 조치에 대한 이해와 적용 역량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 참고문헌

관계부처합동 (2012).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서울: 관계부처합동.

김종미 (1997). 초등학교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의 성격과 유발요인.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0(2), 17-31.

김준호 (2006). 학교폭력의 정의 및 현상. 문용린 외(편), *학교폭력의 예방과 상담*(pp. 27-46). 서울: 학지사.

노순규 (2012). 학교폭력의 원인과 해결방법. 서울: 한국기업경영연구원.

송재홍 (2012). 학교폭력의 현주소. 송재홍 외, 교대용 맞춤형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교재 개발 연구보고서(pp. 3-30).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용역과제.

박효정, 정미경, 박종효 (2006). 학교폭력 실태조사(연구보고 RR 2006-8-4).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정종진 (2012). 학교폭력상담: 이론과 실제 편. 서울: 학지사.

청예단 (2008-2012). 2007-2011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 보고서. 서울: 청예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 11388호, 2012. 3. 21 일부개정].

Astor, R. A., Behre, W. J., Fravil, K., & Wallace, J. M. (1997). Perceptions of school violence as a problem and reports of violent events: A national survey of school social workers. *Social Work*, 42, 55-68.

Astor, R. A., & Meyer, H. A. (2001). The conceptualization of violence-prone school subcontexts: Is the sum of the parts greater than whole? *Urban Education*, 36, 374-399.

Coloroso, B. (2003). *The bully, the bullied, and the bystander*. New York: Harper Collins.

Michael, F., Leslie, B., Scott, P., Jessica, M., & Sharon, B. (1996). Factors associate with school psychologists' perceptions of campus violence. *Psychology in Schools*, 33, 28-37.

Thomas, M. R. (2006). *Violence in America's school: Understanding, prevention, and responses*. Westport, CT: Praeger Publishers.

- ◆ 원 고 접 수 일: 2012년 7월 31일
- ◆ 수정원고접수일: 2012년 9월 10일
- ◆ 게재 승인 일: 2012년 9월 22일

## Differences of Perceptions between Pre-service and In-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on th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School Violence

Jae-hong Song<sup>1)</sup> Kwang-soo Kim<sup>2)</sup> Sung-hee Park<sup>3)</sup> Ie-hwan Ahn<sup>4)</sup> Ik-soo Oh<sup>5)</sup>

<sup>1)</sup>Jeju National University    <sup>2)</sup>Seoul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up>3)</sup>Che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up>4)</sup>Busa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up>5)</sup>Gwa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Hyuk-gi Eun<sup>6)</sup> Jong-jin Jeong<sup>7)</sup> Bung-hwan Cho<sup>8)</sup> Jong-kwan Hong<sup>9)</sup> Mae-hyang Hwang<sup>10)</sup>

<sup>6)</sup>Jeo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up>7)</sup>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up>8)</sup>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up>9)</sup>Daeg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sup>10)</sup>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The purpose of study was to analyze the differences of perceptions between pre-service and in-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on th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school violence. For this purpose, 459 student teachers and 289 in-service teachers has responded a questionnaire consisted of 12 core questions and 8 supplementary questions about th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school violence. The findings of this study was as follows: First, in-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perceived the problem of school violence more seriously than student teachers. Second, in-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student teachers perceived the lack of parents' concern of their children and the disturbed friendship as major causes to arouse school violence, and insisted to improve students' emotional self-control and social skills in order to prevent school violence. Third, in coping with students' violent behaviors they took the need to interview the student' parents and to invite them to meet each other halfway. Fourth, With government's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they acknowledged the importance of policy alternatives but made doubt of their effectiveness. Finally, both in-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student teachers approved of a plan to assign the required subject of 'Prevention and Intervention of School Violence' to the student teachers, particularly student teachers approved more positively than in-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Key words :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counseling, teacher education*